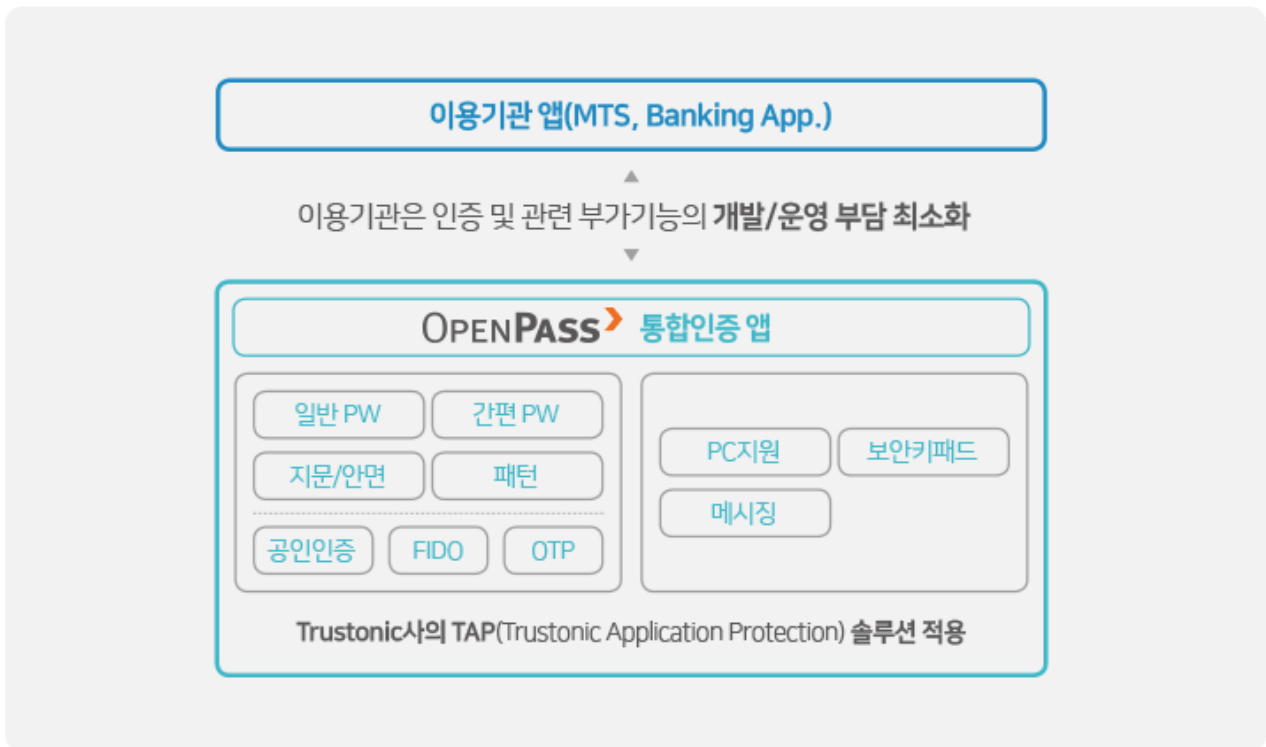


코스콤 ☒ 안랩 서비스 제휴 인증과 보안을 하나의 앱으로, 통합인증
OpenPass

»» **프레스룸**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‘안랩 V3 모바일 플러스 2.0’에 코스콤 통합인증기능 이식
 코스콤 ‘OpenPass’, 2,800만 V3 사용자에게 인증서비스
 별도 앱설치 없이 인증과 금융거래 보안을 앱 하나로

-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이 안랩(대표 권치중)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인, 통합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- 안랩과 코스콤은 안랩의 모바일 금융거래 전용 보안 앱 ‘안랩 V3 모바일 플러스 2.0’에 코스콤의 독자적인 통합인증기능(OpenPass)을 이식한 서비스를 개발하고, 8월 상용화를 목표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.
- OpenPass(이하 오픈패스)는 간편 비밀번호부터 생체인식과 패턴 등 편리한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로 고객사가 필요한 인증서비스를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오픈패스는 노플러그인 방식을 지원해 웹 브라우저에서 액티브X 등 번거로운 프로그램 설치없이 이용할 수 있다. 유효기간도 최대 5년으로 공인인증서를 매년 갱신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. 따라서 오픈패스 일반 사용자들은 PC에 인증서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C에 로그인하는 등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증권사 등 금융사는 코스콤 오픈패스를 도입하면 간편인증, 생체인증 등 새로운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운용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. 현재 코스콤 인증서비스(SignKorea)를 이용

하고 있는 고객은 4월말 기준 약 530만명이다.

□ 안랩의 'V3 모바일 플러스 2.0'은 스마트폰 बैं킹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설치하는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금융거래 전용 보안 앱으로, 약 2,800만대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고 있다.

□ 코스콤은 안랩의 'V3 모바일 플러스 2.0'에 오픈패스를 이식하여 2,800만 기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기존 'V3 모바일 플러스 2.0' 사용자들은 별도의 인증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.

□ 코스콤과 안랩은 향후 증권☒은행☒보험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